

탄소거래소 광주·전남 와야 맞다

나주 전력거래소와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

정부, 부산 설치 움직임 '비상'

광주·전남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최근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전력거래소(KRX)가 아닌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KRX)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탄소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1위인 전남은 탄소규제에 따른 최악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한국거래소에 두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

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들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미 차관급이나 1급 간 부회의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로 가야한다는 논의가 벌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3년간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를 실시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앙 일간지 일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의 선률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전력거래소가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견해에 힘입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광주·전남이 한국전력을 혁신도시로 유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배출 감소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 ▲세계 선진국에서도 전력거

래소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함께 설치했다는 점 등을 들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력거래소 내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산업이 집중된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2007년 현재 연간 5천471만t)에 달해, 탄소배출권 거래 역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도입되면 광주·전남 등 호남권이 배출권을 가장 많이 사야 하는 실정이어서 지역 총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말 온실가스 관련 세미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6.7%, 지역별 부가가치는 12.4%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순실이 를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지역 기업들의 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김지자 기자 chadol@



태극기 환호

16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빙속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모태범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내달말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19일부터 기초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지방선거 본격 점화

6·2 지방선거가 19일 광주지역 구청장과 광주시의원·전남 도의원, 목포시 등 전남 5개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시장 경선은 다음달 27일, 전남지사 경선은 28일 실시하는 인을 논의하는 등 경선시기와 방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돼 당내 경선 열기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3면>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다음달 21일부터 등록한다.

지난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지만,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민주당 강운태·이용섭·주승용 국회의원 등 유력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시장 경선은 다음달 27일, 전남지사 경선은 28일 실시하는 인을 논의하는 등 경선시기와 방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

측돼 당내 경선 열기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구 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청와대비서관, 남평오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등도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 계획이다.

국회가 1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교육의원 후보들도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일부 입지자의 경우 이미 선거 사무실을 임대하고, 예비후보 법정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했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경선을 대비한 조직력 보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에 당내 경선 위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단체장들은 당분간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 움직임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속속 예비후보 등록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

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을 전후해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고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은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경선을 다음달 27일과 28일 각각 실시하는 안을 1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경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한다. 그러나 박주선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가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태범은 16일(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1, 2차 시기 합계 69초82를 기록, 일본의 나가시마 게이치로(69초98)를 0.16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모태범은 한국이 처음 참가했던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이

모태범 빙속 사상 첫 금

전북 남원이 고향인 모태범(21·한국체대)이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일본 식민지였던 1936년 독일 가르미슈-파렌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았던 김정연 이후 무려 76년 만에 수확한 값진 금메달이다.

더구나 모태범은 자신의 생일날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린 동시에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는 최고의 영광을 맛봤다.

모태범 선수의 아버지 모영렬씨는 전북 남원군 대산면 풍촌리가 고향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제는 광주고등법원장 김사관 교수로 김광준
마나 법률법인 모리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광주 출신으로 광주대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부산 고등법원장 회장. 법무법인 모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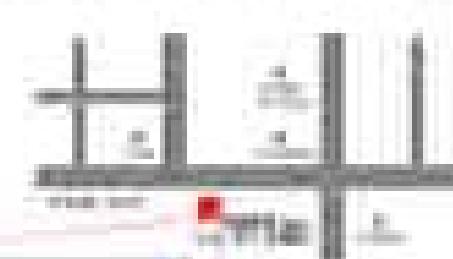
변호사 전호천

업무개시: 2010. 2. 26. (금)
업무집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장로 708-202 (한국은행 2동 2층)
대표전화: 062-227-0668
팩스: 062-225-0700



피시스템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피시스템 글씨는 출판 고지판을 작성, 배포한 바와 같이 사용되고



FEEDS FEEDS Room